

은행

산업이슈 브리프 |

Check Point

- 적자누적과 자금지원 중단 우려로 크레딧스위스 리스크 고조
- SVB 사태와는 본질적으로 상이
- 금융시스템 안정화 조치 시행 가능성

크레딧스위스 리스크 점검

Analyst 전배승 _ 02 3779 8978 _ bsjun@ebestsec.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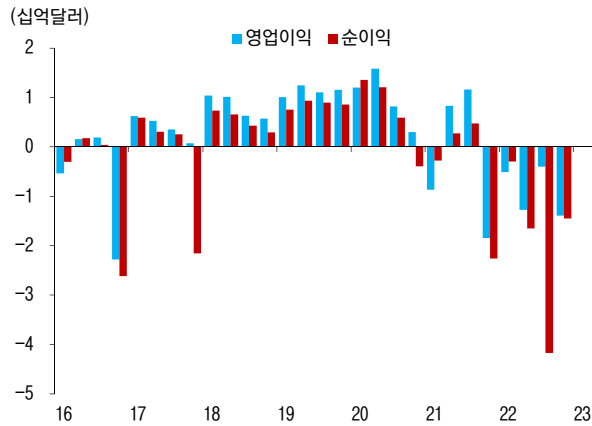
크레딧스위스 리스크 고조: 실적악화가 근본 원인

- ▶ 전일 크레딧스위스 주가가 급락하면서 해외 은행주 역시 큰 폭으로 하락. 크레딧스위스가 최근 21~22년 재무제표 상 중대한 결함(material weakness)이 있음을 밝힌데 이어, 전일 최대주주인 사우디 국영은행(SNB, 9.9%)이 추가적인 자금지원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며 우려가 고조됨
- ▶ 크레딧스위스는 21년 헤지펀드 아케고스 파산에 따른 대규모 손실을 인식한데다, 지난해 자금세탁 혐의와 고객정보 유출사고, 과징금 등 일련의 스캔들로 인해 3년 계획의 구조조정을 진행 중
- ▶ 2021년 이후 총자산 규모가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22년 중 총대출은 10%, 유가증권은 40%가 감소. 이자이익이 정체되는 가운데 비이자이익 부문에서 손실이 누적되면서 21년 4분기 이후 매 분기 적자를 시현 중. 2018~20년을 제외하면 2015년 이후 사실상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적자규모가 확대되며 ROE가 -15%까지 하락. 다만 자산감소 폭이 크게 나타나면서 보통주자본비율은 13~14%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 이자이익은 정체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감소 폭이 크지 않고 21년 아케고스 관련 대규모 총당금 적립 이후로는 대손비용 또한 안정적 흐름. 대출채권 감소로 최근 고정이자여신비율이 1.3%까지 상승했으나 절대수준이 높지 않은데다 22년 대손율은 10bp 미만을 기록해 실적악화는 이자이익 약화나 부실채권 발생 보다는 비이자이익 부진에 기인. 결국 유가증권 운용, 투자은행(IB)관련 업무에서 손실규모가 확대되고 각종 스캔들 관련 추가비용 인식으로 경영여건이 극심하게 악화된 것으로 해석

SVB 사태와는 본질적으로 상이. 금융시스템 안정화 조치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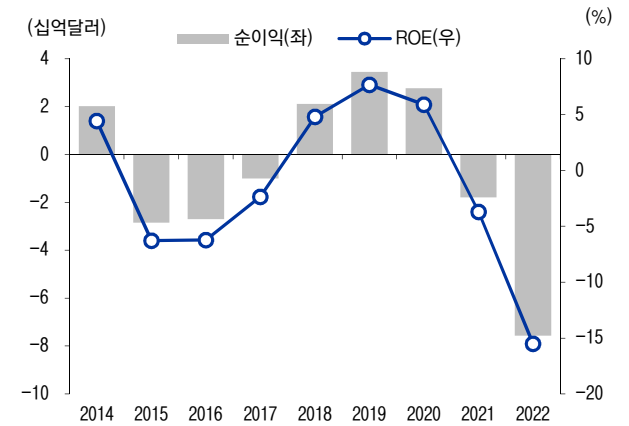
- ▶ 총자산 중 현예금 비중이 20%에 달하고뱅크런이 촉발한 유동성 위기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SVB 사태와는 본질적으로 상이. 장기간 디레버리징과 실적악화가 지속되어 왔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전염우려 또한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다만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어 금융주 전반의 투자심리에는 부정적으로 작용. 금융시스템 불안 혹은 자금경색 조짐이 나타날 경우 금융당국의 유동성 지원조치가 병행될 가능성 높음

그림1 크레딧스위스 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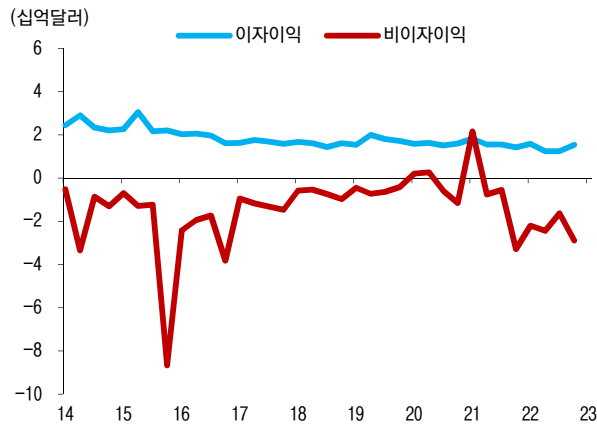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크레딧스위스 연간순이익과 RO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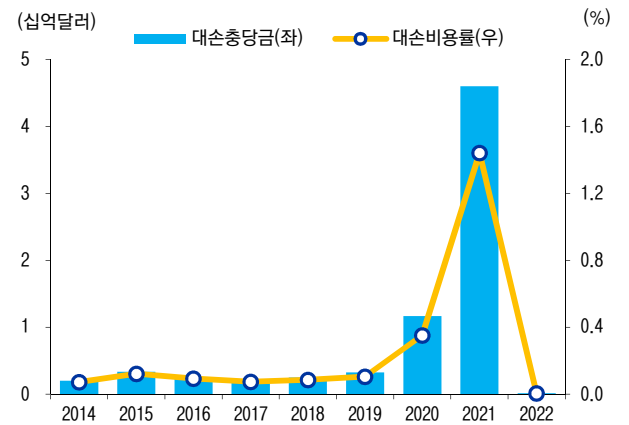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크레딧스위스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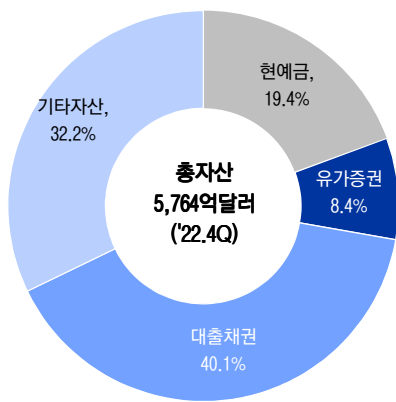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크레딧스위스 대손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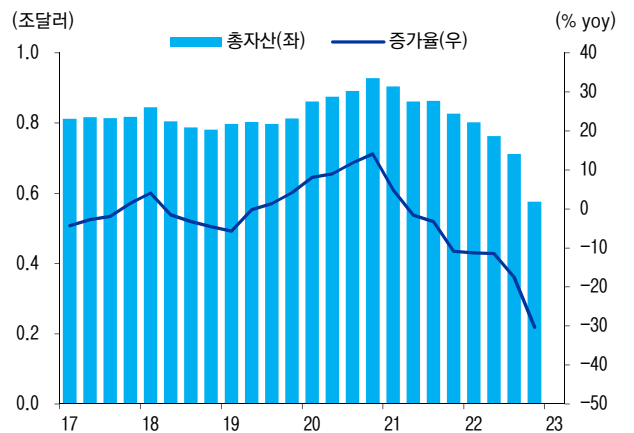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크레딧스위스 자산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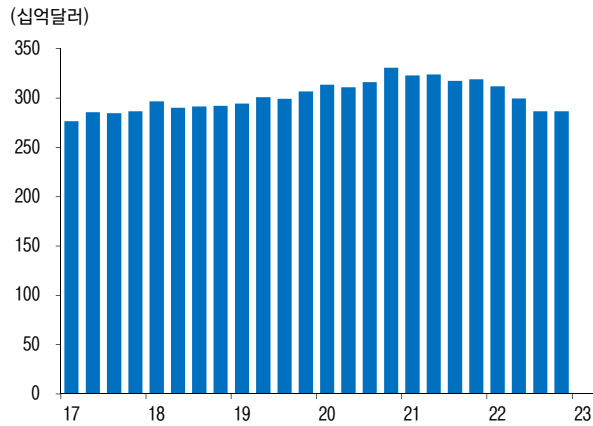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크레딧스위스 총자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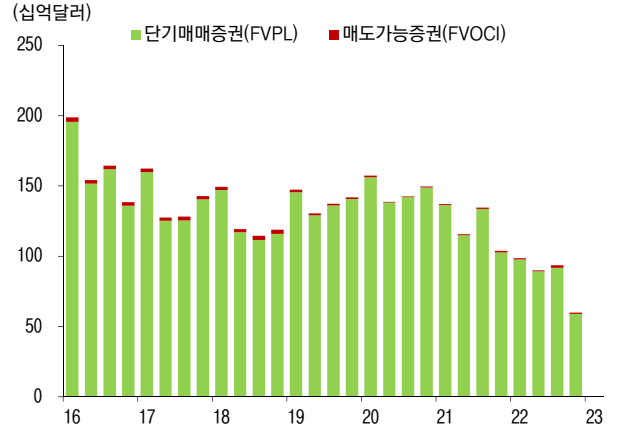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크레딧스위스 총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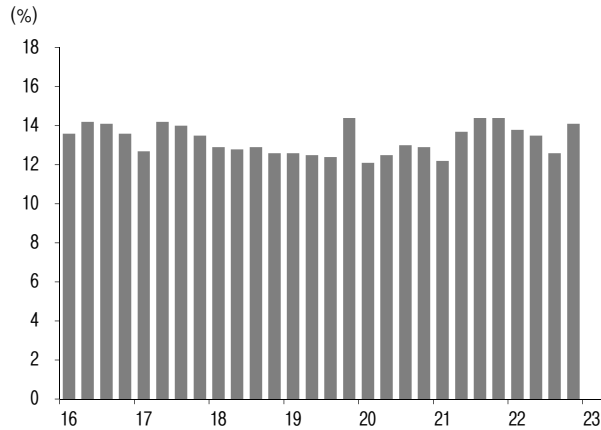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크레딧스위스 유가증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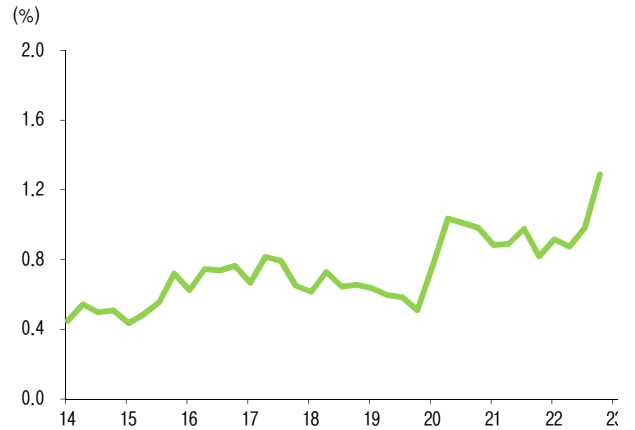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크레딧스위스 보통주자본비율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크레딧스위스 고정이하여신비율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전배승)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단계	Buy (매수) Hold (보유) Sell (매도)	+15% 이상 기대 -15% ~ +15% 기대 -15% 이하 기대	93.0% 7.0%	2018년 10월 25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존 ±20%에서 ±15%로 변경
		합계		100.0%	투자의견 비율은 2022. 1. 1 ~ 2022. 12. 31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